

유럽인문아카데미 강의  
신유물론의 자연철학 7강

Alfred North Whitehead (1861–1947)

# 화이트헤드 자연철학, 들뢰즈와 신유물론과의 접속

최종덕  
(philonatu.com)  
2025년 5월 26일

"화이트헤드는 인간의 경계를 넘어  
모험을 감행하는  
대담하고 희귀한 철학자다".  
(Harman 2005, 190)

# 화이트헤드(A.N.Whitehead 1861~1947)의 철학의 3 단계

- 존재의 수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 러셀과 같이 작업하던 초기 수학철학의 시대,
- 자연 안에 내재된 관계성을 찾으려 했던 중기 자연철학의 시대,
- 유기체의 사유를 통하여 인식과 존재 그리고 우주를 통합하려는 후기 형이상학의 시대

CN	The Concept of Nature, 1920 (안호성역, 자연의 개념. 2025)
SMW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1925
SMW-k	과학과 근대세계 : A. N.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서광사, 1989
PNK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Natural Knowledge, 1919
PR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1929(1979 corrected edition)
PR-k	과정과 실재(오영환), 민음사, 1991/2003
MT	Modes of Thought, 1938.
AI	Adventures of Ideas, 1933(1967)
FR	Function of Reason, 1929(1971)

- Isabelle Stenger, Thinking with Whitehead
- 스티븐 샤비로(안호성) 2020, 사물들의 우주: 사변적 실재론과 화이트헤드
- 문창옥,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이해, 통나무, 1999
- 도널드 셔번(오영환/박상태),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 입문, 서광사, 2010
- 그레이엄 하먼(김효진) 2019, 네트워크의 군주: 브뤼노 라투르와 객체지향 철학.
- 최종덕, 화이트헤드의 관계성의 개념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 최종덕, 창조를 낳는 연속성의 철학적 상상력, 화이트헤드 연구(창간호).
- 최종덕, 기술결과측정의 시민참여와 화이트헤드의 공재적 의사판단구조, 화이트헤드연구2호.
- 최종덕, 관계론에서 본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양자역학, (과학과 형이상학 수록)

## “구체성을 잘못 놓은 오류” 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

- “객관화의 위기’ crisis of objectivity : 근대과학의 정신이란 근원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실 irreducible and stubborn facts에 대한 탐구이며 이는 곧 존재의 보편성을 찾아가는 활동이다.(SM, 16) 화이트헤드는 이런 과학의 존재를 차갑고 건조하며 무색의 cold, dry, colorless 본성으로 표현했다.
- 구체성과 추상성을 혼동하는 오류: 자연의 대상들 즉 공간의 점들 points of space 과 시간의 순간 instants of time 그리고 물질의 입자들 particles of matter에 대한 개념들이 마치 존재의 구체적 실상인양 오해되고 있음을 화이트헤드는 지적했다.

- 과학의 개념은 분석의 관점에서 탈피해야 함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실체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관계와 변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자연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화이트헤드는 강조했다.(PNK, 2) 이런 자연철학의 입장은 후일 유기체 철학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 전통적인 물질관은 물질과 공간을 이원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볼 때 공간 위에 물질이 담겨진다는 생각이다. 거꾸로 말해서 공간과 물질은 이원적이다. 고전과학의 물질관은 플라톤의 실체론적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화이트헤드는 지적했다.
- 화이트헤드는 이런 추상화된 공간과 물질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그의 자연철학의 존재론적 기반이다.(Mays, 38)

## 베르그송과 화이트헤드 차이

- 베르그송은 과학적 시간과 체험적 시간의 구분을 강조했다. 과학을 위한 기계적 시간이 삶을 위한 나의 체험적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거부했다. 베르그송의 의도는 체험성을 자연적 대상object안으로 유입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지만 반면 과학적 시간의 실체성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화이트헤드는 보았다.(Northrop, 168)
- 화이트헤드는 대상세계와 삶의 세계를 굳이 나눌 필요도 없으며 물리세계와 생명세계를 하나의 우주적 통일체로 녹여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화이트헤드는 물리적 대상 자체도 관계성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 독립된 존재는 없다.

- 자연 가운데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존재는 경험세계와 대응되는 바가 아무 것도 없다고 화이트헤드는 그의 책 <자연의 개념>에서 강조한다.(CN, 34)
- 공간화된 시간은 순간instant of time들의 나열일 뿐이며 논리적으로 구성된 관념이라고 했다.(SMW, 95)
- 화이트헤드는 이런 관념을 형이상학적 괴물metaphysical monstrosity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정도다.(PNK, 8)

## 구체적 시간으로서 지속(CN, 75-77)

1. 경험적이고 구체화된 시간이다.
2. 그 자체로서 자연의 추이 passage of nature를 존속시킨다.
3. 감각의식sense-awareness안에 확보된 직접적 사실이며 그런 사실들이 모여 자연을 이룬다
4. 어느 지속은 지속의 전체를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재의 지속은 결과의 지속에 대응될 수 있다.
5. 지속은 항상 시간적 폭temporal thickness을 유지한다.

# 지속

- 지속은 “고정된 테두리에 갇혀있지 않고”(PNK, 69), 스스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며 자연과 항상 상호소통을 한다. 지속의 연속적 흐름continuous stream가운데 ‘지각된 것’the perceived과 ‘지각 안 된 것’the unperceived 사이의 분명한 구분은 없다고 한다.(PNK 69)
- 존재 자기동일성은 추상적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적 인식에 궁극적 지속에 의해서만 가능하다.”(PNK, 8)

# 대상에서 자연으로, 진입

- 화이트헤드는 대상을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CN, 149) (1)감각대상sense object (2)지각대상perceptual object (3)과학적 대상scientific object 이다. 이 세 가지 관점이 합쳐진 것이 바로 자연 안에 놓여진 구체적인 대상이며, 이것이 바로 실재이며, 그의 사건 개념의 기초를 이룬다.
- 화이트헤드는 감각대상이 사물에 포착되는 과정 자체를 자연이라고 보았다. 곧 “자연에 대한 감각대상의 다항관계polyadic relation에 의해 대상으로부터 자연으로 진입ingression하는 과정이 바로 감각의식이다.”(PNK, 84)

# 감각은 대상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인식하는 것

-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진 추상적인 속성(영원한 객체, 감각대상)들이 실제 자연 속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존재에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관계(다항관계)를 맺으면서 현실화(진입)되는 과정
- 감각은 고정된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관계 맺는 '과정' 자체를 인식하는 것
- 감각은 단순한 수동적 지각이 아닌, 세계의 근원적인 관계적 본성을 파악하는 능동적인 과정

# 사건 – 후기철학의 “현실적 존재”로 발전

- 고전물리학에서 사실fact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stubborn 불변의 존재였지만, 화이트헤드에게서 사실이란 운동 중에 있는 과정의 존재becomingness이다. 이를 그는 사건이라고 부른다. 사건 개념은 후일 현실적 존재의 기초가 된다.
- 한 사건은 다른 사건과 독립적일 수 없으며 홀로 고유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은 대상 개념에 의한 단순 사물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의 다양화된 상호연결 interconnected의 관계이다. 그것도 추상적 관계가 아니라 사건 개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연관된 사태”이다.(PNK, 13)
- 대상을 지각 - ‘인지’recognize; 사건을 지각 ‘파악’ apprehend (Palter, 24)

# 자연

- 자연은 원자적 단위의 집합이 아니라 사건들의 관계적 생성 그 자체이다.(PRel, 310)
- 단위의 집합이 아니라 사건들의 관계적 생성 그 자체이다.(PRel, 310)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인과율적 자연causal nature과 현상적 자연apparent nature으로 구분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서 있다. 이러한 이분법bifurcation의 구분은 형이상학이 과학철학에 불법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CN, 39)
- 구체적 자연은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 직접 나타나며 감각적으로 의식되는 전체적 지속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성, 구체성, 연속성, 개체성이라는 성질을 구비한 사건event의 복합체로 나타난다.

# 이분화bifurcation 극복

## 1. the bifurcation of nature

구획1. the nature apprehended in awareness 나뭇잎 색깔, 구름의 포근함

구획2. the nature which is the cause of awareness - 전자, 분자, 세포 등으로  
the conjectured system

이렇게 화이트헤드는 자연을 둘로 나누는 자연의 이분화를 우리 인식의 가장 큰 오류라고 지적한다. 근대 초기 일차/이차 성질을 구분한 것과 비슷한 오류라고 한다.

2. "붉게 빛나는 노을"과 지구 대기층에서 굴절되는 태양빛의 분자 차원의 전파  
현상"이 동일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CN 29)

과정"은 내가 무엇what을 포착하는지와 어떻게how 포착하는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의식에 떠오른 자연과 원인자로서 자연이 같은 이유는 어떻게와 무엇이 동등하다는 과정철학의 핵심이다.

샤비로2021, 19

# 후기 형이상학 기초

있음being은 그것의 됨 becoming에 의해 구성된다. PR 23

생성의 철학: 일자가 먼저 존재하여 그 일자가 다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자가 우선하여 다자들이 일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다자들의 물리적 단순 합이 일자가 아니다.

#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의 기초

1. 부분-부분은 모두 내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
2. 부분-부분은 전체와 통신을 하고 있다. 마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별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내적으로 상관되는 것처럼, 상관성의 핵심은 자기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부속인 존재가 또 새로운 것을 낳을 수 있다.
3.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의 통신은 존재들 사이 공재성togetherness의 내재적 힘에서 가능하다.
4. 이러한 통신 작용을 화이트헤드는 ‘합생’이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합생은 유기체의 창조성을 낳는 동지이며 존재 간 합목적성을 배태한 중요 개념이다.
5. 대상과 주체 사이 상호 진입, 대상과 대상 사이 상호 진입을 통하여 존재는 생명성을 보전하게 된다.

# 변화의 주체도 변화, 주체없는 변화

- "무엇무엇이 변화한다"라는 명제 속 주어를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유기체 철학의 주요한 특징이다.
- 명제 전체가 자기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다.
- 변화의 주어를 상정하면 유기체 철학이 아니다.

# 현실적 존재 actual entities

- 세계를 구성하는 원자론적 차원의 기본단위이며 궁극적 존재

다수성의 단위는 현실적 존재(actual entities)

현실적 존재에서 다수성의 결합체로 나아가는 길: **공재성(togetherness)**

합생 개념의 전신

공재적이란 여러 종류의 존재가 임의의 한 현실적 계기 속에 <공재>하는 여러 특수한 방식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일반적 술어이다. 따라서 <공재적>이란 개념은 <창조성>, <다자>, <일자>, <동일성>, <다양성>diversity 의 개념들을 전제하고 있다.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원리는 이접적으로 주어진 존재들과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를 창출해내는, 이접에서 연접으로의 전진이다. 이 새로운 존재는 그것이 찾아내는 <다자>의 <공재성>인 동시에, 또한 그것이 뒤에 남겨놓는 이접적인 <다자> 속의 일자이기도 하다. 즉 그것은, 그 자신이 종합하는 많은 존재들 가운데 이접적으로 자리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인 것이다. (화이트헤드(오영환역) 과정과 실재, 78쪽)

# 신유물론으로 본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 actual entities

- 현실적 존재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기본적인 실재
- 물리적인 물체, 생명체, 사상, 감각 등 다양한 형태의 존재를 포괄적으로 지시함
- 프로세스의 참여자 (Participants in Processes)로서 현실체는 어떠한 종류의 프로세스에도 참여할 수 있다.
- 현실적 존재는 지속적인 변화와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활동한다.
- 상호연결성 (Interconnectedness)으로 모든 현실적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 현실적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큰 실재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경험의 과정 (Process of Experience)으로서 현실적 존재는 지속성 속에서 경험의 과정에 참여한다.
- 모든 현실적 존재는 경험의 활동자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속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
- 파악과 연관되어 있다.(Relevance to Prehensions) 즉 현실적 존재는 기존 파악과 연관되어 자기화가 이뤄진다.
- 이러한 연관성은 과거 경험과 현재 환경에서 발생하는 관찰, 감각 등을 포함한다.
-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는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 개념으로, 이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경험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현상들이 형성된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 현실적 존재

1. 원자론적 존재로서 기존 유물론적 원자론이 아니라 유기체적 원자론의 성격.
2.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 으로서 느낌의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생.
3. 마치 소우주적 존재에 비유될 수 있다.
4. 현실적 존재의 집합체(대우주)가 nexus(결합체) 혹은 society(사회)이다.
5. 현실적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類로 존재하여 서로에게 평등하다.
6. 신이나 우주 먼 먼지 하나나 같은 류의 현실적 존재자이다.(셔번 2010, 26), PR18(78)
7. 현실적 존재 하나하나는 경험행위이며 PR 40(120), 현실적 계기를 구성하는 여건들을 경험하는 행위다. (셔번 2010, 28)

# 파악Prehension

Apprehension을 인간을 주어로 하나 파악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아닌 객체들에게 능동성 행위(느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apprehension에서 어두 'ap'를 삭제하여 "prehension"이라는 용어를 조어했다.

만족된 현실적 존재 - 파악 - 합생 - 느낌 - 새로운 현실적 존재 - 여건

연속성의 생성은 있지만 생성의 연속성은 없다.

there is a becoming of continuity

but there is no continuity of becoming

(PR 35)

# 경험

- 근대인의 경험은 감각지각을 말한다. 이때 경험이란 현시적 직접성presentational immediacy이다. 즉 인간의 경험을 말한다.
- 반면 화이트헤드에서 경험은 비인간 주체에서 경험을 적용한다. 이때 경험은 객체들의 인과적 효과성causal efficacy으로 드러난다.
- 경험이란 나와 사물이 모두 " 공통세계 "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 합생concrecence

- 내부에 들어온 다자를 통일하여(객체적 통일성) 일자를 만들어가는 내부작용의 생성 과정. (이행은 외부에 있는 다자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과정) – 여기서 일자는 현실적 존재로 된다. 즉 현실적 존재는 자기 생성 과정에 있다.
- 합생은 자기 이외의 다수를 자기의 것으로 통일하는 과정이다. 이때 통일성이 현실적 존재의 불가분성인 개체성을 이룬다.
- 합생은 현실적 존재의 자기구성활동이며 실재적인 내적 구조이다.

# 주체 초월 공통세계

- 데카르트의 코기노, 칸트의 초월론적 연역, 현상의 판단중지epoche 모두 세계에 대한 주체의 지식/인식의 방식이다. 화이트헤드는 이런 주체 방식에서 벗어나려한다.

"경험된 사물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주체 중심의) 지식과는 구별해야 한다" 사물이 인식을 위한 길을 터주는 것이지 주체가 사물을 일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화이트헤드 철학의 중심이다. 경험은 인식을 포함하지만 나의 인식을 초월하여 공통세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SMW가 말해주고 있다.

- SMW 88-9

# 공통세계 common world

- '공통세계'는 개별적인 모든 존재가 다른 모든 존재와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상호 섭수하며 서로의 존재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일된 관계망이자 '경험의 장'이다.
-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서로를 일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실재' 안에서 경험과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 '공통세계'는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인식의 가능성과 객관성의 근거가 되는 궁극적인 배경이다.

# 자기합목적적 자기조직성 -생명

- 화이트헤드의 내재적 목적은 '자기 합목적성(self-organization)'이며 유기체 활동성의 근원이다. 생명이 기계와 다른 중요한 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조직성은 생명의 자기 합목적적 구현에 해당한다.

# 자기초월적 주체 superject-subject

- 주체가 객체로 활용되면서 현실적 존재가 완성되고 그런 객체는 다시 주체로, 다시 객체로 파악하는 주체를 자기초월체라고 한다
- 상황적 환경을 포섭한 주체를 초월체라고 한다. 이런 주체는 세계의 모든 주체와 연결된다. 연결되지만 구속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상호연결 개념은 기존의 전통철학에서도 있었다.
- 전통철학에서 존재 간 연결은 반드시 존재의 구속을 함의했다.(자기중심적 연결)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주체는 상호연결되어 있지만 각자는 자유롭게 새로운 모습novelty을 지닌다.(객체중심적 연결) 그러한 주체를 자기초월적 주체superject-subject라고 했다.

# 자기초월체

주체가 <존재>로 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초월해서 후속하는 현실적 존재에 대하여 객체로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체가 객체로서 역할하여 새로운 현실적 존재로 생성하는 주체를 자기초월체라고 한다.superject

화이트헤드에서 주체는 항상 자기초월적 주체로 파악된다.

(셔번 2010, 39;역자주)

# 상관주의와 관계주의 correlationism                  relationism

1. 상관주의correlationism 란 주체와의 관계를 떠나서 객체 그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Meillassoux 2008, 5) 상관주의는 실재는 정신과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2. 상관주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이 세계 접근하는 것에 관한 질문으로 환원되며, 인간이 아닌 것들의 관계는 자연과학에 모두 떠넘겨지고 있다. (Harman 2009b, 156)
3. (내가) 사유한 것은 완전히 사유로 전환되며, (나의) 사유의 밖에 위치하는 것은 반드시 언제나 사유할 수없는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Harman 2010, 789)

# 사변적 실재론speculative realism

1. 상관주의를 벗어난다.
2. 주어-술어, 실체-성질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벗어난다.
3. 비인간중심주의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동등한 지평에서
4. 수학 세계나 합리주의 세계를 다루는 논리나 현시적 직접성을 강조하는 인간의 주관경험(근대주의)에 제한시키지 않고 사물간 관계를 볼 수 있는 생각.
5. 사변철학은 화이트헤드에서 시작, 최근 신유물론 흐름에 따르는 "사변적 철학"은 메이야수, 하먼, 레이 부라시에, 해밀턴 그랜트의 철학적 경향을 말한다.

# 화이트헤드, 현재성의 의미

- 과거는 무화되지 않고 미래를 생성하는 현재의 소재(여건)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한 태도가 중요하다